

Elisa Penttilä

Metropolia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Bachelor of Design, Major in Textile Design
1-year exchange at Joshibi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Department of Design and Craft,
Program in Textiles Weaving

エリサ・ペンティエーラ

メトロポリア応用科学大学文化デザイン学科テキスタイルデザインデザイン専攻
女子美術大学 芸術学部 デザイン・工芸学科 工芸専攻 協定留学生 (1年間)

펜틸라 엘리사

핀란드 메트로폴리아 응용과학대학 디자인학과 텍스타일 디자인 전공

조시비미술대학 예술학부 디자인공예학과 공예전공 협정유학생 (1년간)

My 10-month exchange at Joshibi has come to its end. In a way, it feels like I just arrived here yesterday, and in another way it feels like I've been here forever. It hasn't been easy, but it's definitely been an enriching experience that I will hopefully continue to draw inspiration from for a long time.

* snip *

女子美での10か月間に及ぶ交換留学が終了しました。ある意味で、ここに来たのがつい昨日のことのよう思えるし、逆に永遠にいたような気がします。楽だったとは言えませんが、実に豊かな経験をする事ができ、この経験から今後長期にわたり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受け続けられたらと願っています。

～中略～

10개월간의 조시비 교환유학이 끝났습니다. 여기 온 것이 어제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계속 여기 있을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이 경험을 통해 앞으로 장기적인 영감을 계속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략)

In my experience, Joshibi is a university where students take their work seriously and devote themselves to the projects. The Weaving program is really challenging and the deadlines are tight: I've really been pushed to work my hardest here (both by my teachers and myself), and I feel that the work I've produced here is more refined than my work in Finland—maybe because I've had pretty much unlimited time at my hands to set aside for schoolwork. In addition, I've truly enjoyed the facilities at Joshibi: spacious classrooms, a big dye lab, materials available to use and different looms at hand, assistants who can answer your questions... Working on assignments has been really easy when everything just flows.

* snip *

女子美において、学生たちが自分の作品に誠実に取り組み、制作に全力を注ぐ様子をわたしは見てきました。織りのプログラムはほんとうにチャレンジに満ちたもので、期限を守るのが大変でした。ベストを尽くして制作を進めるよう促されました(先生からも、そして自分自身もです)。わたしが女子美で制作した作品は、フィンランドでのものよりいっそう洗練されていると感じています。それは恐らく、自分が学業に割く時間がほとんど無制限にあったためです。さらに、女子美の施設がほんとうにすばらしかったことも理由の一つです。ゆったりとした教室、広い織りの研究室、必要な資材や織機が身近にあっていつでも使えること、そして質問によ

く答えてくれる助手の皆さん……。すべてが的確に機能するとき、課題制作はむしろたやすいものにも思えました。

～中略～

조시비는 재학생들이 자신의 작품에 진지하게, 제작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드는 대학임을 보아 왔습니다. 직물제작은 정말 도전적인 과정이며, 마감시간 또한 엄격합니다. 최고를 향해 제작하게끔 교수님, 그리고 제 자신으로 부터도 독려하게 만드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조시비에서 제작한 작품은 핀란드에서 제작한 작품보다 한 층 세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학업에 할당한 시간이 거의 무제한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시비의 시설이 정말 훌륭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넓은 강의실과 연구실, 사용 가능한 재료와 직물기들이 제 주변에 있었으며 항상 제 질문에 대해 주시는 조교님들... 모든 것이 알맞게 기능하였을 때 과제제작을 정말 쉽게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My first semester was difficult for many other reasons too, but I was happy to see that the work I did then did bear fruit later. As we started our second semester, I felt much more at ease with the language, the culture and the workload, and it did wonders! Becoming more confident in speaking Japanese and attaining a level where I was comfortable participating and communicating with my classmates and teachers really made a huge difference for me.

* snip *

前期のセメスターが大変だったのには、他にも幾つかの理由があります。それでも、自分の頑張りがあとあとになって実を結ぶ様子を見られて幸せな思いを持ちました。後期が始まるころには、言葉や文化、作業内容がいっそう理解できるようになり、驚くほどの進歩が見られました。日本語を話すことにいっそう自信を持ち、クラスメイトや先生との輪に安心して加わり会話できるレベルに達することで、自分にとって大きな違いがもたらされました。

～中略～

첫번째 학기는 여러가지 이유로 힘들었지만, 제가 해 온 일들이 나중에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두번째 학기가 시작되었을때 언어와 문화, 작업내용에 대해 한층 이해 할 수 있게 되었고, 놀라운 정도의 발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어를 할때 자신감이 생겨 급우들과 교수님들과의 의사소통이 편한 수준이 되어, 제 자신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중략)

I really cannot emphasize this enough: learning Japanese was absolutely necessary in building a good relationship with my teachers, assistants and classmates. It enabled me to work independently in a school setting that is essentially 100% Japanese speaking, and allowed me to get so much more out of discussions, critiques and classes. My teachers, their assistants and classmates were really helpful and supportive of my language learning throughout the year, and I owe them a big thank you for that.

* snip *

この点は強調してもし過ぎることはありません。先生や助手の皆さん、クラスメイトと良い関係を築くうえで日本語を学ぶことが絶対に必要です。それによってわたしは、基本的に100%日本語が使われる学校の環境の中で自立して学業を進めること

ができ、議論や講評、授業からより多くを得ることが可能になりました。先生方、助手の皆さん、クラスメイトは、語学を学ぶうえでよく助けてくれ、1年を通してずっと支えてくれました。とても感謝しています。

～中略～

이 점은 충분히 강조되어야 합니다. 교수님들과 조교님들, 급우들과의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일본어를 배우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일본어로 100% 말하는 학교 환경속에서 스스로 학업에 임할 수 있었으며 훨씬 많은 토론과 강평,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들, 조교님들, 급우들은 제가 일본에 있는 1년간 일본어 학습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중략)

All in all, this year in Japan has been full of adventure, discovery and learning. I'm happy to say that I've succeeded in terms of learning a ton about weaving, being able to work on personal projects in addition to regular schoolwork, and gaining a certain level of professional proficiency in Japanese. I'm looking forward to returning home and seeing if I can make use of my designs, Japanese weaving techniques or my language skills at some point in the future!

全体的に見て、日本で過ごしたこの1年間は冒険と発見、学びに満ちたものでした。わたしは幸いにも、織りについて多くを学ぶことに成功したとすることができます。また通常の学業に加えて個人的なプロジェクトを達成することができ、日本語についても熟達といえる程度のレベルを得られたことに満足しています。故国に戻るのが楽しみです。そして、将来いつかは自分のデザインと、日本の織りの技術、そして語学力を活用することができたらと希望しています。

일본에서 보낸 1년간은 모험과 발견, 배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직물에 대해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으며, 통상 수업외에 개인 프로젝트를 달성하였고, 일본어로 어느정도의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국으로 돌아가 장래 제 디자인과 일본의 직물의 기술, 그리고 일본어를 활용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